

2013 충청남도청소년 국제교류활동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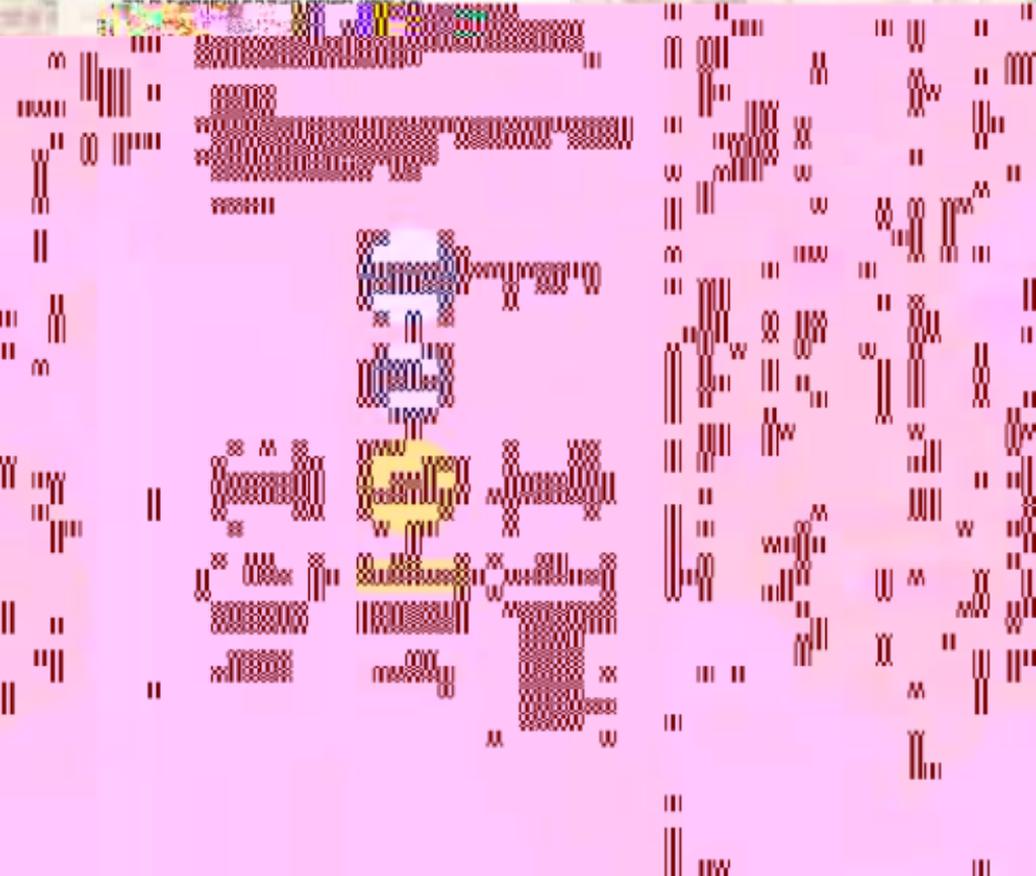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지원에 기여하
 여 청소년활동, 청소년직업봉사지역, 상담, 보호, 건강구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에서 설립한
 청소년활동 및 상담 전문 기관입니다.

주요기능 및 역할

- 청소년에게 연구 개발
-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행동강화 사업
- 청소년 복지관련 및 보호사업



2013 충청남도청소년

국제교류활동보고서



Contents

프롤로그(Prologue)

Chapter 01

충청남도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

파견지역 : 베트남 / 동안생
파견기간 : 2013. 7. 22(월) - 7. 29(일) / 7박8일

Chapter 02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파견지역 : 라오스 / 선홍
파견기간 : 2013. 8. 7(수) - 8. 17(토) / 9박11일

Chapter 03

고구려 · 발해 역사탐방

탐방지역 : 중국 / 동경성, 연길, 용정, 백두산, 환인 등
탐방기간 : 2013. 8. 8(목) - 8. 10(토) / 4박5일

Chapter 04

서북미충청향우회 청소년 고국방문

방문지역 : 충청남도 / 천안, 부여, 공주, 논산 등
방문기간 : 2013. 7. 8(일) - 7. 10(수) / 2박3일

Chapter 05

국제자원봉사활동 이것만은 알고가자!

국제자원봉사활동에 위한 준비
안전관리 대책 및 질명 유의사항



01



03





프롤로그 (prologue)



충청남도청소년
문화교류봉사단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
(KYVP)



I ♥ Love
Korea





과거에 · 발굴해
역사탐방
기념



서북미충청강우회
청소년 고국방문





 국립중앙청소년리더십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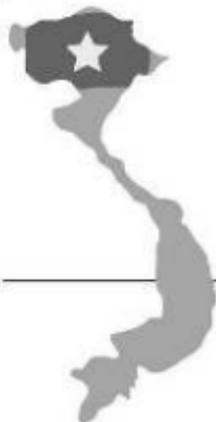
충청남도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

파견지역 : 베트남 / 불안성

파견기간 : 2013. 7. 22(월) ~ 7. 29(일) / 7박8일

활동국가정보

베트남



Vietnam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인접하고 있고, 면적은 331,690km²로 한반도의 약 1.5 배이다. 북쪽단과 최남단간 직선거리는 1,660km에 이른다. 국기는 1945년 9월 4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독립할 때 처음 만들어졌고,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후인 1955년 11월 30일, 이전 기에서 별의 5각을 다듬어 낱가래를 수정하여 북(北)베트남의 국기인 금성총기(金星總旗)로 제정하였다. 베트남전쟁 후, 1976년 7월이 중일 국가의 국기로 정하였다. 반강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한 색엔 5개의 모서리는 노동자·농민·지식인·청년·군인의 단결을 나타낸다.

정치명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위치/수도	인도차이나반도 동부/하노이(Hanoi)
민족구성	베트남인(한족 86.2%)
정부	일당 독재체제
종교	불교(70%), 로마가톨릭(10%)
기후	열대몬순기후
국가전화코드	84
화폐단위	동(Dong) / 1.00USD = 약 21,175Dong(2013. 7. 9. 기준)
공용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한마디

안녕하세요	신 짜오(안녕하세요), 짜오(안녕)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도이 또 현꾸웁 켄
이름이 뭐예요	옌 켄 라 지
나는 huong 이예요	켄 도이라 흐엉
고맙습니다	신 캄양(안녕하세요) / 켄안(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	신 코이/켄 사오
예(Yes)/아니오(No)	벵/켄 다이
안녕(Bye)	땀 비엣
또 만납시다	헝 갱 라이
나는 너를 사랑해	도이 이에우 엠
제가 고맙습니다	도이 도이낭
여기 얼마예요?	까이 나이 하오 니우 띠엣?

1 사업목적

-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활동에 참여
- 청소년의 직업과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환경을 적극적으로 확대
-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함양과 역량강화
-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 획득을 위한 인도주의적 세계관 배양

2 추진경과

연도	인원	장기현황
2005	17명	청소년 14명, 지도자 3명
2006	17명	청소년 13명, 지도자 4명
2008	17명	청소년 15명, 지도자 2명
2010	12명	청소년 10명, 지도자 2명
2011	12명	청소년 10명, 지도자 2명
2012	14명	청소년 12명, 지도자 2명
2013	14명	청소년 12명, 지도자 2명

3 활동보고

가. 추진과정

날짜	주요내용
3월 30일 ~ 4월 13일	참가자모집
4월 20일	면접심사
4월 27일 ~ 7월 20일	1-6차 사전교육
7월 22일 ~ 7월 29일	충청남도문화교류봉사단 활동
8월 2일	수료식 및 평가회

나. 추진결과

- 학기간 : 2013년 7월 22일(월) ~ 7월 29일(일), 7박 8일
- 피견지역 : 베트남 중앙성(리전관리부서) 파우탄고등학교, 탄안시 본부초등학교
- 주요일정

일차	1일자 22일(월)	2일자 23일(화)	3일자 24일(수)	4일자 25일(목)	5일자 26일(금)	6일자 27일(토)	7일자 28일(일)	8일자 29일(월)	
06:00-07:30	기상, 조식, 환승안내, 이동								
07:30-11:00	선리장교관 (11:00)	한지대학교· 미디어의 만남 (한국외교실) (하드웨어교실)	학교 환경개선 봉사활동 (정문제약)	초등학교 봉사 활동	문화탐방 (호치민시)	영국 음식 만들기 (비디오투로다)	학교 환경개선 봉사활동 (신문게시판 주변)		
11:00-13:00	승세(미디어 탐방)								
11:00-13:00	승세(학교)	승세(학교)	승세(한인숙소)	승세(요사방)	승세(어임소레)	승세(학교)			
13:00-15:00	승세(학교) (14:00)	학교 환경개선 봉사활동 (영문제약)	초등학교 봉사활동안내	학교 환경개선 봉사활동 (한국인물기)	문화탐방 (호치민시)	가공방문 ----- 어과물가공 청수생거로활동 (승선봉사단)	추석만들기 체험시강연회	-양현남항 (06:30) -한민도학 (11:30)	
15:00-17:00	승세(학교) (14:00) 양현남항 (18:00) 5H30m소요 출발준비 (22:00) 현지시간	말라톤초교 및 프로그림 준비-교육					대학수 및 만찬 (복식)		
17:00-17:30	일과 정리 및 이동								
17:30-19:00	식사								
19:00-21:00	경기, 지리회, 박물관준비								
21:00-	휴식								

• 참여인원

한 국					베트남(헤노이)					총계
청소년	지도자	동행	서포터즈	소계	청소년	교사	공무원	공산 정년회	소계	
12	2	2	3	19	12	2	1	2	17	26

4 충청남도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 단원 소개



강한솔

호서고등학교 2학년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 번 가게 된다면 베트남 친구들에게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어요.



김선희

공주대학교
영양교육과 2학년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은 새로운 의미가 '가져다 주었어요' 문화교류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법, 겸양하는 법 등과 더불어 세 공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김준희

계룡고등학교 2학년

사전교육 때 열심히 준비한 활동 놀이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를 맺어 부듯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근 늦잠을 잘 수 있어서 숨지던 베트남 친구들과 한계한 일주일이 그런데요.



김현승

부여고등학교 1학년

충남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에 참여를 계기로 보다 넓은 사고방식과 큰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버디, 선생님, 친구들 만났던 모든 인연을 잊지 못할 거 같아요.



박고은

서립고등학교 2학년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밤 흘리며 일하고, 즐기고, 배우며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베디친구들이 있어 즐거웠습니다.



복찬수

예산고등학교 1학년

아직도 아침에 버스를 타고 짜우턴 고등학교에 가야할 것 같아요. 제 기억속에서 소중한게 간직할 추억이었어요. 오늘도 천 방 천장에 걸린 버디의 선물인 모빌을 보며 잠이 듭니다.



서 소

공주대학교
무이교육사 2학년

대학생인 저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실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왔어요.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주일동안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영이 담장님 감사
합니다!



전한희

호서고등학교 2학년

베트남 친구들의 가정방문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가족처럼 챙겨주던 버디친구들과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꼭 또 만나고 싶어요.



정건호

참고고등학교 1학년

이번 봉사단을 통해 '몽'이라는 친구를 만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봉사활동이 타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배우

고 왔어요.



지경현

대전고등학교 1학년

제가 문화교류봉사를 다녀온 것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인생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최승연

대전여자고등학교 3학년

퍼인트 칠하기, 음식만들기, 가정 방문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트남 친구들과 교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말을 배우려는 베트남들의 모습도 아직도 생각나네요.



최시은

군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베트남이라는 낯선 나라에 문화 교류봉사를 간다는 사실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해외봉사를 다니며, 온정을 나누고 싶어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해볼까? 지루한 것을 싫어한 나에게 눈이 띠운 것은 다른 어떤 비트날 문학교류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방학에는 아르바이트 대신에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던 나에게 이것은 새로운 호기심이었다. 운이 좋게도 벌써 많은 사전교육을 철저히 받은 후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도 기획하면서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비트날에서의 일상은 너무나 재밌었고 기대 이상의 활동이었다. 다시 말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덕분에 선했던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고 나와 술이반이 대학생이기에 우리가 자엄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해 나갔다. 서서히 어려워진 좀 더 이 친구들이 잘 해 낼 수 있도록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처음 어서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들 물론 표정과 열의가 가득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비트날에 가서 직접 바다들과 친영 할 때는 재미도 있었지만 많이 힘들었던 점도 있었다. 사회주의라는 차이는 우리에게 좀 낯설기도 하

었고 생소하였다. 문화의 차이를 느낄 때마다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선인전들이 어슬렁어슬렁 시작했
다. 처음에 본 그들의 여유롭고 느긋한, 말한 것대로 준비가 안 된 문화, 우리보다 많이 뒤쳐진 시설 등이 답
답하고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먼 처음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에 배운 '다름에 대한 존중' 없이는 나의 시야가
넓어질 수 없고, 이해라는 곡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내자 우연히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름에 대해 인성을 하고 나니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수월했다. 예기치 못한
변수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베트남 총리의 숙소가 우리 숙소와 같이 우
리의 방을 몇 개 뿐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나라의 사회문화는 이런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버디들과 의사소통은 정말 쉽지 않았다. 또한 나이가 여러다 보니 언가 주장도 강해서 우리 한
국 친구들이 상처를 받는 친구들도 있었다. 자치회의를 점점 더 하면서 처음에는 활동에 대해서 재미만 느끼
던 우리가 점차 시교 피드백을 해주면서 성장여감을 느꼈다.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
다. 일주일동안 정이 들어 버린 버디들과 헤어지는 것은 많이 힘들었다. 버디들과 포옹을 정말 많이 할 것 같
다. 필름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써주었을 때 가장 울컥했다. 동영상의 우리의 사진을 보며 우는 나의 버디
를 보고 굉장히 속했다. 시적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지만 정미 할이 보고 싶은 생각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
었다. 단순히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준 일주일의 끝이었다. 이번 일주일엔 힘들고 더운 것
보다 나에게 줄게 온 여행방향을 선사하였다.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나의 꿈에 대해 깊은 시교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리더의 자세 뿐 아니라 경청하는 태도, 너그러운 자세 등 배운 것이 너
무나도 많다. 문화교류라는 그 틀 안에서 나는 문화교류 이상의 것을 얻고 간다.

'교육의 실은 교사의 삶이다.' 라는 말이 있다. 교육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 개선안 교육일지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교사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은 여
우 중요하다. 내가 좀 더 발전하고 노력하고 변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
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또 다른 지식이 되어 학생들에게 단순히 가르치는 것 이외의 존엄한 자원이 될 수 있
다. 이번 경험은 나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좀 더 시야가 넓어지



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나
의 더행생활을 좀 더 재있게
만들어 주었다.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것은 많은 친구들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다. 내
예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보고 싶다.



Chapter 02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파견지역 : 라오스 / 폰홍

파견기간 : 2013. 8. 7(수) ~ 8. 17(토) / 9박11일

활동국가정보

라오스



라오스는 면적이 236,800 평방킬로미터이며(대한도의 1.1배),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전체 국토의 70%가 산지나 고원이며, 3분의 2가 숲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각 주별의 계곡을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1952년 이래 사용되어온 병행 국가를 어국전선이 사용하던 기로 바꾸었다. 병행은 혁명전쟁에서 유희된 파올, 파올은 병명을 뜻한다. 현재 동그리마는 계곡 공(工) 위로 떠오른 커다란 만월(滿月)과 함께 공산주의 정부 하에서의 단합 또는 나라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상징한다. 공산국가의 국기 줄이 옆이 들어있지 않은 두문 예에 속한다. 1975년 12월 5일 국호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으로 바꾸면서 국기로 함께 제정하였다.

정치영향
위치/수도
민족구성
정부
종교
기후
국가전화코드
화폐단위
공용어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인도차이나반도/시에타방(Vientiane)
라오족(88%), 라오통(22%), 효종 및 야오족을 포함한 라오승(9%)
사회주의 공명체
불교(67%), 쁘름신앙 및 기타(33%)
연대문순기후
85
킵(Kip) / 1.00USD = 약 7,760.5Kp(2013. 7. 9. 기준)
라오어

라오스어 한마디

안녕하세요?	싸바이 디
설계합니다.	커 뚝
고맙습니다./정말 고맙습니다.	킵 짜이/킵 짜이 라이 까이
또 믿는디.	똘깁 마이미 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짜오 쓰양
저 이름은 똘깁둥이고 한국인입니다.	케이 쓰 똘깁둥 똘 쁘 까올리
저는 라오스 말을 잘 못합니다.	케이 박 꺾사 리오 버어 다이 리어
배고픉니다./배부릅니다.	히우 카우/양 라우
맛있습니다.	썸
저는 라오말을 잘 못합니다.	케이 박 꺾사 리오 버어 다이 리어
생음을 빕니다.	커 하이 썸디
여것은 똘미입니까?	니 테오 다이?

15

1 사업목적

-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활동에 참여
- 청소년의 직업과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환경을 해외로 확대
-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함양과 역량강화
-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 차이를 위한 인도주의적 세계관 배양
- 파견시기의 다문화화를 통한 다양한 기관의 참여 유도
- 국가 이미지 제고와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본 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세계화

2 추진경과

년도	파견국	한국파견인원	홍남파견인원	주요내용
2002	7개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홍콩, 대만, 호주)	147명/130명	청소년 3명 지도자 2명	월드컵청소년홍보단
2003	6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157명/269명	청소년 8명 지도자 3명	청소년학의동사건으로 개칭
2004	3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167명/182명	청소년 5명 지도자 2명	국제인 등기 봉사활동
2005	1개국 (스리랑카)	167명/176명	청소년 9명 지도자 2명	쓰나미피해구급보상단
2006	1개국 (러시아 연해주)	167명/174명	청소년 8명 지도자 2명	국제인 등기 봉사활동
2007	2개국 7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167명/182명	청소년 8명 지도자 1명 의료진 1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지원
2008	2개국 8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167명/183명	청소년 8명 지도자 1명 의료진 1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09	4개국 12개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167명/240명	청소년 15명 지도자 3명 의료진 1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0	4개국 12개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167명/266명	청소년 15명 지도자 3명 의료진 1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1	5개국 14개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187명/304명	청소년 15명 지도자 2명 의료진 1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2	5개국 20개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207명/372명	청소년 15명 지도자 2명 의료진 1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2013	5개국 18개지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187명/332명	청소년 15명 지도자 2명 의료진 1명	청소년센터 및 학교, 지역사회 지원, 캠페인

· 참여인원

한국				파견국(리오스)					총계
총수원	지도자	의료진	스케	총수원	지도자	KDICA	현지대학생	스케	
15	2	1	18	15	1	3	1	20	38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단원 소개



고지연

내포중학교 3학년

막내로 들어와서 보살핌을 많이 받아서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번에 내가 받은 경험으로 나도 누군가의 선배가 되었을 때 이번엔 받은 것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첫 해외봉사 경험이 좋아서 앞으로 많이 알아볼 생각이다. 다음에는 내가 막내를 챙길 것이다. 꼭꼭 성장해서 다시 올거요~



고하림

호서대학교 2학년

오지않을 것만 같았던 라오스에 서의 10일이 내게 조금 더 특별했던 이유는 전공과의 연계성 그리고 해외봉사를 향한 오랜 꿈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황홀한 작표를 따라갔더니 그 작표의 끝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부지가 되었다. 라오 곱파이 라이라이



구현진

천안대학교 2학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얻은 것은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온 것 같다. 코이카 선생님 분들, 쾨나 선생님, 우리 단원 선생님분들과 단원들 그리고 라오스 무디들까지 웃기더라도 스킨인 인연이라고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여 준비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었고, 지난 9박 10일동안 같이 고

생하고 지내서 인지 더 행복주고 싶고 가족같고 또 보고싶고. 그런 느낌이 지루 든다.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생각을 배우게 되었으며, 덩고

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내성다지...
 했고 살 건네 주어져 버려진, '법'
 동심등을 배울 수 있었다.



김소희

대안어시고등학교 2학년

많은 사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고 그리움으로 남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꿈만 같았던 것 같다. 비록 9박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2013년에서의 가장 좋은 경험이자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



문화목

중부대학교 3학년

무디들과의 의사소통이 제일 걱정이었지만 막상 활동을 하다보니 인제 그런 걱정을 했냐는 듯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 무디들과 활동하면서 느꼈던 기분, 감정, 그리고 모든 활동들

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활동을 하고 돌아온 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다. 무디와의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지만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하고 값진 일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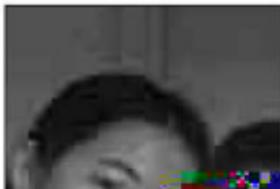
신수지

경희대학교 3학년

어쩌면 다시 만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기에 무디 친구들과의 헤어짐이 너무나 아쉽다. 돌지않기로 마음에 수없이 다짐했는데 마지막인사를 하면서 참아왔던 눈물들이 한없이 쏟아졌다. 이런 헤어짐에 기억 또한 나와 무디와

의 추억이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느꼈던 감정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단원 소개



유혜영

순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KYVP를 신청했던 이유가 해외봉사대에 대한 꿈이 있어서도 맞지만 더 큰점은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꿈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진것 같다. 무엇보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와오빠를 만나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서로를 배려해주며 모두 다 열심히 함께 해주어서 서로 부딪치지않고 잘 한것 같다. 절대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하나 더 생긴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때 친구의

힘을 그려나가기야겠다.

윤서진

천안여자고등학교 2학년

무디와 어색했던 첫 만남도 잠시, 바자회도 좋은 성원속에서 끝나고 수익금으로 쓴싸윗초등학교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부듯했다. 바삐축제때 서로의 팔에 하얀 실을 묶어주며 평평을있게 많이 기억에 남는다.

이승돈

광양고등학교 2학년

솔직히 나는 이렇게 많이 웃어 본적이 없었다. 한국에서 나는 대학입사를 준비하는 고2이다 보니 구름도 물론 본적이 적었다. 그래서인지 여기와서 처음으로 아를 담게 뭉쳐있는 구름들도 보고 다 같이 화합하면서 활동을 하는 게 너무나 나에게 뜻깊은 9박이었다.



이승훈

중앙고등학교 2학년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전환이 되는 시간 이었다. 모두가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되었고 18살 여름날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벌써 라는 단어가 입에 맴돌았고, 단원들 모두



이연주

중앙대학교 2학년

우리는 주러간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정'이라는 단어가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것 같다. 이번 봉사를 통해 대학교를 다니면



이원하

효신고등학교 1학년

사전교육 준비부터 라오스에서 10일 동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다.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나는 반드시 꼭 신청할 것이다. 해외봉사는 힘들지만 재미있었고

와 knica 선생님들, 라오스 친구들, 현지까지 인전히 지도해주신 지도자님들께 모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다.

서 만나지 못한 소중한 인연을 알게 되고, 봉사의 참된 의미도 알게 되어 좋았다.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이번 경험을 되새기며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새로운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이었다.



최연지

호서고등학교 2학년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 라오스 어렸다고 물어봐도 뭐라고 말해 줄 수 없었다. 말로는 절대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갔다와봐 그러면 알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다시 라오스로 가고 싶을 만큼 좋았고 한번쯤 라오스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황원

천안병동고등학교 1학년

처음나가기게되는 외국이라던지, 비행기를 처음탄다는 것에 더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다. 하지만 라오스에 도착하고 무리들을 만난 후 팀원들이 준비해놓았던 프로그램 생각을하니 내가 라오스에 온 이유가 확실히 일깨워졌다. 단원들 서로에게 더욱 신경써주며 진정한 봉사단의 모습을 볼 수



황혜미

광주광역시고등학교 1학년

이런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교육을 받으면서 봉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함께 배려해 주는 것이다. 다소 어린 나이에 이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모두 너무 고맙는 것 같다.

어른다.

있었다.

라오스를 다녀오며...

과하림

호서대학교 2학년

Bloom in Laos. 청춘의 좌표를 따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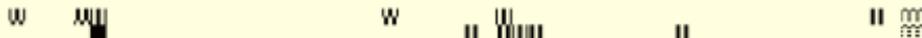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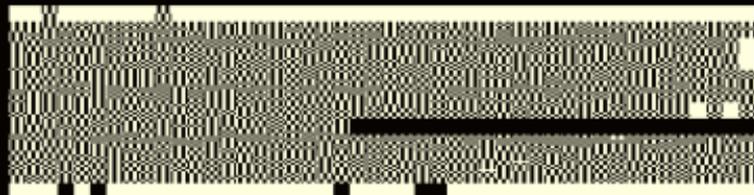
2013. 8. 6. 11: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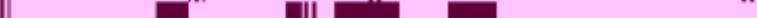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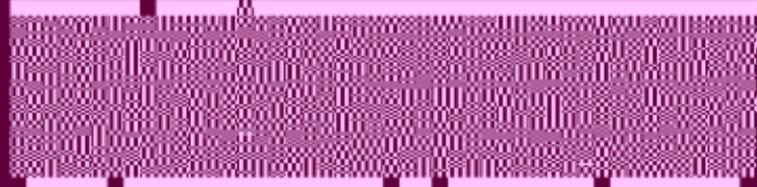
오지 않은 것만 같았다. 처음 단점을 준비하던 그 당시만 해도 진짜 라오스에 갈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나일 단점들을 만나면 실감이 날까? 공항에 도착하면? 아니면 비행기가 이륙하면 그 때? 시간은 니도 모르는 새에 빠르게 흘러 허우를 앞두고 있다.

다이어리를 타고 사천교목 후에 썼던 문구들을 다시금 읽어보았다. 설명이 가독하다. 그러다가 회가 거름하자 무언이 생어 더니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다고 호언장담하던 면집도 떠올려본다. 그 때 내 가슴에서 타오르던 열정의 씨앗이 지금도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았다. 살타오르고 있는지. 가가만 하면 뛰는지 다들 것 같던 그 때의 열정을 잊지 않는 열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3. 8. 7.

늦은 밤, 발이 낯는 라오스의 공기는 끈끈했다. 전년도 단점들에게 의뢰 들어왔던 그 대우였다. 새로운 곳을 향한 두려움이 다시금 실행으로 바뀌어갔다. 늦은 밤이라 라오스의 많은 것을 눈에 담지는 못했지만 행지





문자는 인으로 실명할 수밖에 없었다. 속상하고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걸국은 너 부주의였고, 누군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속이 쓰라리고 눈물이 자주 치를랐다.

2013. 8. 10.

우울중한 날씨 때문에 모두의 심정이 곤두서있었다. 이심저게 준비한 바자회가 오늘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날씨로 인해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안드러갈까 놓치고 싶지 않았다. 모두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까? 오후가 되자 날이 개어 화창해졌다. 실례는 마음으로 바자회를 준비했다.

수익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자면 무척 성공적이었다. 물건은 모두 팔았고, 수익금도 상당했다. 폰사잇 초등 학교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준비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과정 중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준비하는 과정이 이수선했다고 느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던 걸 감현으로 배웠는데, 고등학생 단원들을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더 꼼꼼하게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2013. 8. 11.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안고 있던 양국 음식 만들기과 가정방문의 날이다. 믿어 굉장히 손조롭게 진행됐다. 중간에 같이 그저 폭 찍어 낸드름 길는 것조차 단명한 크기였는데, 모두는 너무 걱정해주어서 도리어 미안했다. 한국에서는 요리도 못하는데 구워받기 일수인데, 그래도 언니라 여기서는 잘할까? 아저씨처럼 도맡아 했다.

나와 오니, 수지언니와 사이클 그리고 소희와 아임은 승호의 부디언 겐너 집이 방문했다. 결은 평소 나와 다르게 지내는 아이여서 더 신이났다. 순박하고 정감방긋 웃는 결의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특감이 있었다.

2013. 8. 12.

노래방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진다. 정말 힘이 들 때는 대답하는 것조차 부러워 할 때가 있다. 그저 버티고 서있는 것만. 그렇게 눈동고, 손사잇 사설 개보수 활동은 행동을 나올 동료가 옆에 있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이들이 위해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런지 대우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힘들어하는 중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며 감사하자고 했다. 밝은 날씨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오늘도, 맛있는 점심까지도 모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자고.

2013. 8. 13.

폰사잇 초등학교를 방문해 음악, 미술교실과 메스티벌을 진행했다. 개인적으로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어 기대하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 사설개보수를 위해 어제 폰사잇 초등학교를 둘러 우리에게 인사하던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두들실 마음으로 시작했다. 카메라를 신기해하고 우리를 신기해하는 아이들

이 귀여워 꼭 끌어안아 주고 싶었다.

물약 교실에서 영로디언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아 아이들 틈에 끼어 있어 있었다. 내 입에는 웃음이 꼬질꼬질하고, 녹슨 판을 머리에 꽂고 있는 눈이라는 아이가 있어 있었다. 대구도 친 해주지 않는 눈에게 종강이 갔다. 눈이 나의 권유로 영로디언을 꼭 눌러보더니 깜짝 놀라며 좋아했다. 입에 나와 노르를 부르면 사탕을 준다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주르르 나왔다. 해디의 무디언 키크가 영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지만 손조름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이 사탕을 넣고 심이 시골벽처럼 하는 중에도 눈이 침착코 있어있기에 나가라고 독려해주었다. 눈이 받아들인 사람을 입주미내 날기에 장난을 친 삼산으로 사탕을 달리고 꼭 짊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망설임 하나 없이 내게 건네주었다. 눈의 마음에 감동받아 내 주미내에 있던 개인 간소까지 마구 꺼내 주미내에 넣어주었다. '참 하긴 한국 아니었나? 이네세 나는 사소한 '참'이 깊은 감동쯤 느끼며 이것이 라오스의 대략인가 행복해하고 있다.

2013. 8. 14.

정해진 마지막을 기다리는 건 조금 습관적이다. 현지 않지만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고 우리 모두 우리가 내 입이면 헤어진다든 걸 알고 있다. 8월 7일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하루가 7km로 갔다면 8월 14일엔 지금은 14km로 지나가는 기분이다. 날이 거듭할수록 시간은 빨리 가는데 다음은 깊어져 온다. 하지만 이곳에 올 때 그랬듯, 마지막은 아직 좀 일계간 느껴진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이 다가오는 걸 역자로 막고 서있는지도 모르겠다.

2013. 8. 15.

동영상을 손조름게 만들었는데, 장차상의 문제로 해를 미었다. 병사 고생하고 건강해서 그런지 동영상을 보는 내내 슬펐다. 다음 올때 서로를 보충해주었다. 바빠죽어인지 눈곱죽어인지 모를 정도로 다들 슬퍼했다. 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약 없는 인사가 현지 사물뜨게 느껴진다. 안녕 부디, 안녕 손님, 안녕 라오스.

장남 남 진심 겸으로 '부다들이 우리보다 핸드폰이 더 좋아'라며 놀리던 우리에게 덩장당까지 해주신 발판을 듣고 큰 기쁘음을 얻었다.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우리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것들만 보여주려 할 것 이라고, 우리가 라오스에서 만난 두니들의 모습이 라오스의 전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보이는 면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역화를 전정하는 학생의 자세도 아니거나 해외봉사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어떠한 뜨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씀을 봉사활동에 온 둘째 날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열흘간 나의 생각이 어긋나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라오스의 정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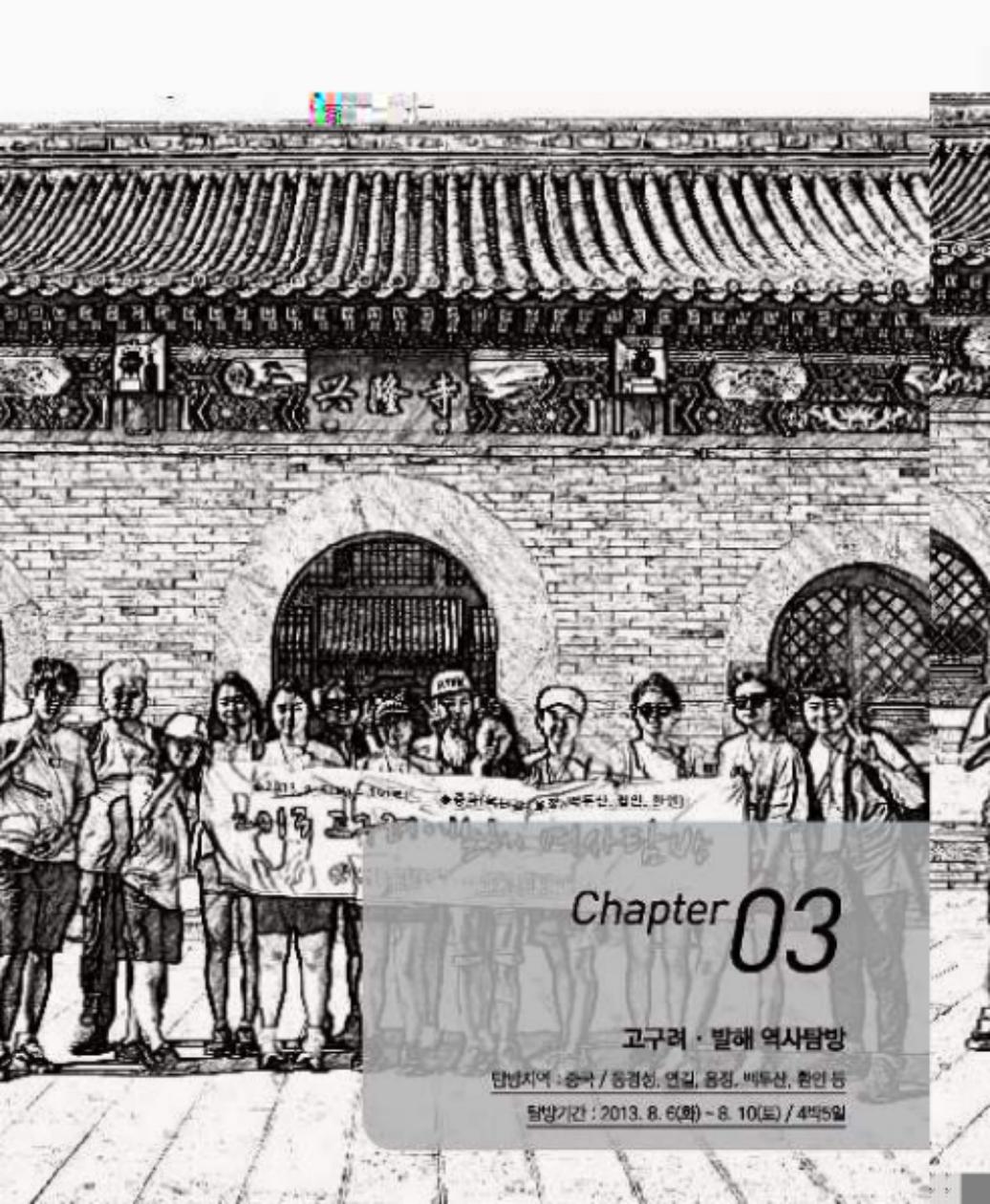
라오스가 내게 조금 더 특별했던 이유는 전공과의 연계성 그리고 해외봉사를 향한 열망 때문이었던 것 같다. 돌아오는 학기에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과목을 배우고, 파르는 교수님이 동남아 지역을 연구해서 봉사활동을 오기 전에 좋은 밑거름을 많이 해주었다. 그래서 현지 라오스를 있는 그대로 느껴면서도 라오스의 깊

은 곳을 보고자 노력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실인지,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정기 해외봉사에 대한 생각이 약해진 것이 사실인데, 함께 말씀을 보던 크기가 선생님들과 지도자선생님들께서 다시금 연정을 더해주셨다. 자기소개서에 썼던 말, 그리고 면접 때 다짐했던 말을 떠올리 본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이 분야인지 실무자로서 경험을 쌓아 나가고 싶단 말, 더욱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좋을 것 같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단 점드는 건 참 무섭다. 취도 세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어가 허아짐을 느끼는 순간 나타난다. 그리고 이미 너무 깊이 빠져있어서 쉽게 등을 돌릴 수가 없다. 각오는 했지만 열을 동안 우리가 뚫은 점은 아주 깊어서 일삼아 틀어박는다는 상심도 되지 않는다. 그들의 여유를 배우고 싶었다. 하루를 쫓아서 쓰지 않으면 점드는 밤이 익을하건 나왔으니까. 라오스에서 만난 무더 친구들은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때 묻지 않은 순박한 디소로 전심을 주는 그들 속에서 치유 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가진 나의 것을 주려 있는데,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었다.

요즘 대학생들의 방향은 참 바쁘다. 공모전도 준비해야하고 토익학원도 다녀야 한다. 미르비이든... 다. 누구에게나 모험이 소중하든나 역시 해야 할 것이 많은 아주 중요한 방향이었다. 자기 있게 자란다고 난 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과정의 크기보다 승리의 크기가 더욱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좌표의 끝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되었다. 라오 캠퍼에 라이라이





興隆寺

Chapter 03

고구려 · 발해 역사탐방

탐방지역 : 중국 / 동경성, 연길, 용정, 백두산, 환인 등

탐방기간 : 2013. 8. 6(화) ~ 8. 10(토) / 4박5일

활동국가정보

중국

china



정치명칭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위치/수도	아시아 동부/베이징(Beijing)
시차	1시간 북쪽
면적	959만 6961km ² (한반도의 약 44배)
인구	13억 4,958만명(2013년 기준)
민족구성	한족(92%)과 56개 소수민족
정부	인민공화국(인민공화제)
종교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3%), 이슬람교(2%)
기후	지역별 다양한 기후대 분포(한대, 온대, 아열대, 열대)
국가전화코드	86
화폐단위	위안(Yuan) / 1달러당 6.08위안(2013년 10월 기준)
공용어	중국어

중국어 한마디

안녕하세요?	니 리오
실례합니다.	칭 윈 아시아
고맙습니다.	셴 셴
또 만나요	이호 짜이따엔미엔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니 하오 윈쓰 홍길동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위 린 난스 셴 수이
이것은 얼마입니까?	찌 거 푸이시오 차옌?

1 사업목적

- 고구려·발해 역사문화 관광을 통하여 5천년 민족문화의 심장과 기상을 치합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 마련
- 해외 탐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계관과 사신감을 함양하고 학습내용과 더불어 단체활동을 통한 사이서빌과 사회성 발달 도모

2 추진경과

연도	외국(여행지역)	인원	주요내용
2010	중국/북단성, 랴닝성	12명	고구려·발해 역사유적지 조사 및 탐방활동 : 흥분사, 삼릉유적지, 마동중학교, 원동수목장, 석굴산, 장교촌, 오룡호호수, 오대산성, 송사노대방비 등
2011	중국/북단성, 랴닝성	11명	
2012	중국/북단성, 랴닝성	10명	
2013	중국/북단성, 랴닝성	14명	

3 추진결과

- 탐방기간 : 2013년 8월 6일(화) ~ 10일(토), 4박 5일
- 탐방지역 : 중국(룡경성, 연길, 룡정, 백두산, 집안) 내 고구려·발해 유적지
- 주요일정

일차	지역	교류현	주요일정	의사
제1일 8/9 (화)	연 길 룡정성	동양버스 KBE23 천원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으로 이동(연하 출발, 2시간 정도 소요) • 공항 도착 후 탑승 수속, 조식(간식 정도) • 인천 출발 • 연길 도착(가이드 미포) / 동관점으로 이동(90분정도 소요) • 발해 삼릉유적지유적지, 발해삼릉박물관, 흥분사관광 • 연길로 이동(시간 30분정도 소요) • 저녁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주교황사 기념사 흥분사지 석굴사지
제2일 8/7 (수)	연 길 룡 정 마 도박이	천원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연변대학교 방문(1시간 정도 소요) • 룡정으로 이동(90분정도 소요) • 대성중학교(관음승주사지, 마 삼일기념관), 왕동수목장, 원동성(자칭, 해안강자 칭), 시교성(관음 승주승주사지, 소명) • 마도박이로 이동(시간 2시간 정도 소요) • 저녁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소호열사 흥분사지 석굴사지



일자	지역	교통편	행사 일정	식사
제2일 8/9 (목)	0 도착하 백두산 (목 파) 종 화	천용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민족의 상징 백두산(북대)으로 이동(30분 정도 소요) • 김치로 된 분류음용후 청자주방 • 장백폭포, 노천은전지대 관광 • 룡학문 이동(8시간 정도 소요) • 식사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별식 중간차식 석간차식
제3일 8/9 (금)	종 화 점 안 완 안 심 양	천용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장민으로 이동 (2시간 정도 소요) • 옛 성터인 [국내성터] • 고구려 20대 중수왕이 부왕인 광개토태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경지 묘탑(왕비릉)] • 동양의 화라이드라 불리우며, 고구려인족 전통 양식의 대표석인 죽서요인 [왕 궁중] • 오후엔 모호고, 국내성 관도산성 조망 • 환민으로 이동(3시간 정도 소요) • 오녀상생 비류스, 상고성지(만공, 하고성지)도성 관광 • 심양으로 이동(5시간 정도 소요) • 식사 후 호텔 투숙, 명사회 및 휴식 	조식별식 중간차식 석간차식
제5일 8/10 (토)	심 양 인 천	천용버스 KERS2 공항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공항으로 이동(1시간 정도 소요) • 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 심양출발 • 인천도착 및 무가 	조식별식 중간차식

• 참여인원

행사년	지도자	가이드	소계
11	1	1	13



고구려·발해 역사탐방 단원 소개



김훈기

대전고등학교 2학년

백두산으로 이동한 후 버스를 타고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라가기 전 걸어갈 줄 알았는데 버스로 정상까지 올라가다니 정말 신기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간 후 자욱한 안개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자를 보지 못하였다.



박지수

단국대학교 4학년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았던 4일째, 차창 밖을 지나면서 살펴 본 국내 성터는 굉장히 마음이 아왔다. 국내 성터 앞뒤로 배곡이 상점들과 아파트가 들어서있었다. 잡초와 나무들로 뒤덮인 그곳은 그 누구도 거대했던 한 나라의 성벽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박하늬

나사렛대학교 3학년

우리는 발해국역사유물전시관과 발해성경음천부유적지로 향하였다. 근데 우리는 박물관에 도착해서 과연 이곳이 박물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설과 편의 시설 등 많이 낙후 되어있었다. 전시관 곳곳에는 동북공정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글귀를 볼 수 있었다.



연누리

서일고등학교 2학년

광개토대왕릉을 본 나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돌덩어들은

크편르 무너져 있었고, 그것들은 그대로 빙자되어 있었다. 흥 내부도 내총 보수공사를 한 것인지 그 구려에 큰 업적을 남긴 왕의 묘라고 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았다.



이다은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연길에서는 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

라에서 우리나라 언어인 한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게 신기하였다. 연변대학교를 방문하고 흥충으로 이동해서 윤동주 생가, 대성중학교, 이상선 기념관을 보았다.



이정민

공주대학교 대학원 1년

항상 교과서에서만 보고 들었던 발해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

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들떠, 흥충였다. 하지만 팔해 성감박물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곳이 과연 박물관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전성민

공주대학교 1학년

있을 뻔 했지만 해리강과 일송정을 차창으로 보았었다. 일송정은 과거 일본인들이 그 일송정을 호링이가 앉아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 그곳으로 훑을 쓰았다는 말도 있었고, 독립투사들이 그곳에서 비밀회합을 자주 해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을 때 약품을 부려 소나무를 죽게 만들었다고 한다.



정다슬

오성고등학교 2학년

장군총은 교과서에서 보면 그대로였다. 장군총 역시 다른 곳들보다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관광객들이 쉽게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걸어가는데 길이 장군총을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장군총이 점점 멀리고 있다는 말을 가이드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뒤로 돌아가 보니 장군총의 거대한 돌들이 점점 멀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다슬

호서대학교 1학년

지난 8월 6일 우리는 중국에 있는 동북공정의 흔적들과 우리역사유적지 함양을 위해 육단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새벽에 출발하여 도착 후 우리는 점심으로 처음 현지식을 먹은게 기억이 난다.



최상아

중화제순대학 1학년

오녀산성의 3시간 등반을 포기하고 들른 오녀산성 박물관은, 정말 보촌이 잘 되어 있었다. 근데 이젠 보촌이 잘 되어 있으면 좋지만 한 게 아니라, 아 이제 중국이 아예 자기네 나라 것으로 안들어서 이렇게 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마음이 안좋았다.



최지연

신명고등학교 2학년

차도 들어가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간 후미진 곳의 돌밭이 하고성자토성이라고 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되물었다. 근데 그냥 드넓은 돌밭이 토성이란다. 이제 곧 기차역이 들어 올 곳이라 이제 이런 흔적조차 없어질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어느 곳 보다 가장 마음아프고 이런식으로 우리 역사의 흔적이 하나 둘씩 없어져 간다는게 슬펐다.

고구려·발해 역사탐방을 마치며...



2013 「고구려·발해 역사탐방」 탐방일지

1일차(8월 8일) : 인천—북단강—동강성상경용릉부, 흥동사, 발해상
경박물관—연길

떨어진 있었던 비행기 사고로 작은 기류에도 흔들리던 역사나 다름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도착한 북단강 공항.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
만, 들어가기 전에는 시골의 테마를 같은 비주요에 살짝 놀랐지만 안
에서는 상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한드문과 캐미라는 현대
민지만 안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직 사회주의의 나라이
서 사는 건 어떤 거구나 라는 생각,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고, 처음 도착해서 맛본 음식은 기류가 살아진 음식이었다. 그래서 그
런지 먹기가 좀 힘들었고,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되고 힘들었던 건 화
장실 이용이었다. 다행이도 칸막이는 있었지만, 약취와 눈썹기가 적음
이 담뿍이 즐날하기 전에 안전공통이 그리울 정도였다.



식사 후 처음으로 들린 목적지는 발해 상경 박물관이었다. 이미 한국
에서부터 우리나라 유적지는 이미 많이 훼손되었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약이 들어 일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들른 곳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누가 봐도 박물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다음으로 들른 곳은 발해상경용릉부. 이곳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였던 만경은화한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걸까지 고



러한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꽃이 많이
 피어 있었고, 쉬고 있었던 했지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나고
 점점 중국적 것이 되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곳 역시 마음이 편히
 있을 틈 수 없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젖은 흥동사는 발과 엉덩 후 오랜 세월 기
 초만 남은 폐사지로 남아있었던 것을 청의 건륭제 시
 대에 그 기초위에 전각을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라고 할 만한 것은 발해시대에 세워진 높이 6m의 석등
 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석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
 도로 거대한 크기에 기둥과 아래, 위로 시거전 연꽃무
 늻 받침돌과 여덟 개의 평면이 난 동심의 정교한 조각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갖춰 문화재가 우리나라
 에서 더 소중한게 다음이 진다면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것들 감사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의 일정들 마친 후 드디어 시작된 버스 투어(??) 연결까지는 총 5시간 가량이 소요 되었
 는데 길은 온통 울퉁불퉁하고, 뿔뿔이리는 경쇠 소리에 차만 타면 흥기 바쁘던 나조차도 험기웠
 던 것 같다. 그래도 좋은 가이드 선생님을 만나서 야경구경도하고, 소원을 적어 바위에 날려
 보내는 풍습이라는 것도 해보고, 너무 기분 좋게 하루를 마쳤다.



**2일차(8월 7일) : 연길(연길대학교) - 용정(용정주경기, 대성중학교, 이상설 기념관, 해방강 및 일출정(차징),
 서고성터(차징), 이도벽하**

주인의 설비마감이 조속속인 연길은, 사람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도처에 있는 상점의 간판도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에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지만 누가 봐도 한국사진을 왜 찍었냐며 의문을 가질



정도로 한국 그 자체였다. 중국어 말지만 모어를 한국어로 쓰고 있는 이들을 미워서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라고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 정도였다. 연변 쪽의 도시들을 너무 과소평가 했는 지 미안할 정도로 발전해 있는 상태였고 연변 대학교의 대학가는 한국의 어느 대학가와 다를 바도 없었다. 학교 건물도 건물로부터 느껴지는 웅장함과, 신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서 '우와'를 남발했던 것 같다. 이 연변대학교에서 만난 교수님은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해서는 최고급 할 정도로 많이 공부하신 분이었고, 그만큼 인정받고 저서는 분 이었는데, 사실 역사에 대해서 문약한인 나는 저음에는 따라가기 어려웠는데, 질문을 하는 시간만 갖으면서 조금 한화했던 것 같고, 이런 탈북을 더욱 탄원하기 인물이 준 기가 가 된 것 같다.

모는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운동주 성기를 갖다. 운동주 그는 자신의 조국을 잃은 박달길은 시를 통해 내연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대표적인 시 몇 점을 그의 성가 앞에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다.

그 뒤 들른 곳은 대성중학교. 1921년 이 당시 300여명의 학생이 재학 했으며 이 곳 교사와 학생들은 황일 민족 애국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일제는 학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1927년 일본 총영사관은 영사경찰을 총원하여 교사들을 체포하지, 이에 학생들은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서는 애국가, 권화가, 학도가 등 가곡과 조선 역사, 조선 지리를 즐기게 가르쳤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참 많은 아픔과 설움을 견뎌낸 학교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보니, 애뜻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럼과 동시에 과연, 자기의 무리나라 줄은 사람들도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조국을 위해 우 할을 부를 쓸 수 있을까? 나무를 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그때 우리조국을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을 고가 속여 감사함을 표현해야 했음을 한국에 와서 후회했던 것 같다. 비록 일성에 있었던 성효공주님을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억할 수 있기에 괜찮았다.

3일차(9월 8일) : 이도택하-백두산(북계)-이도택하-동화

제일 기대가 많았던 백두산 등반! 하지만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서 기이도 선생님과 체도사 선생님, 롬메이노 언니까지 나로 인해 고생한 날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읍을 이끌고 시작한 백두산 등





번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이 끼었던 것이 이튿날 아침에 계속 내려오지 못하다가 아침을 비우고 내려와서 비중 폭포로 향하였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기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었지만, 천지를 못 본 아쉬움도 있었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로 인해 백구산이 보여주는 정관에 폭포의 안 가볼 수가 없었다. 비중 폭포에 도착하기 전부터 단상을 몇 번이나 지른 지 모르겠다. 너무 맛있어서 추웠던 것도 잊을 만홀이었다. 만약에 좋다는, 깔끔하다는 이유로 안 올라왔으면 분명히 후회했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다. 그렇게 입장을 마치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밤진 전등대가 따로 없을 정도였다.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을 두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을텐데, 이곳은 질서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소리 지르고, 길고, 싸우고, 새치기까지... 기다리면 어떤지 다 내려갈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렇게 오늘의 문화충격을 겪은 뒤, 전날 죽었던 속소르 돌아와 짓은 옷을 갈아입고, 뽕하로 이동하였다. 점점 버스의 단검기들이 익숙해지는 듯 했다

비중 왼쪽 있고, 기온도 떨어진 상태에서 5-6시간을 버스에서 보내야 하는 힘은 하무였지만, 서로서로 다독여가며 손잡아가며 버티고, 보낸 이 시간이 잊혀지지 않을 그런 날이었다.

4일차(8월 9일) : 동학→집안(광개토태왕릉, 광개토태왕비, 장군총(배총), 국내성터(자성), 압록강)→환인(오내산성, 하고성지토성)→설악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는 집안성 서북부에 위치한 광개토태왕릉의 태왕비였다. 이날 날씨도 워낙 덥고 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지 못할 것이 아쉽기만 하다. 광개토태왕릉은 생각보다 보존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두 가지 돌을 세워 써서 흔적 많은 돌을 쓴 곳은 약간 부너져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도 그동안 다녔던 곳들 중에서는 그나마 길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잘 닦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광개토태왕비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웅장해 보였다. 밖에서 사진촬영은 가능하지만 안에서는 불가능해서 아쉬웠다. 정말



신기한건 그 옛날에 어떻게 알고, 어떻게 권 것인지, 공개토타왕
 등 꼭대기를 꼭 미으면 백두산 천자와 일직선이 된다는 것. 선조
 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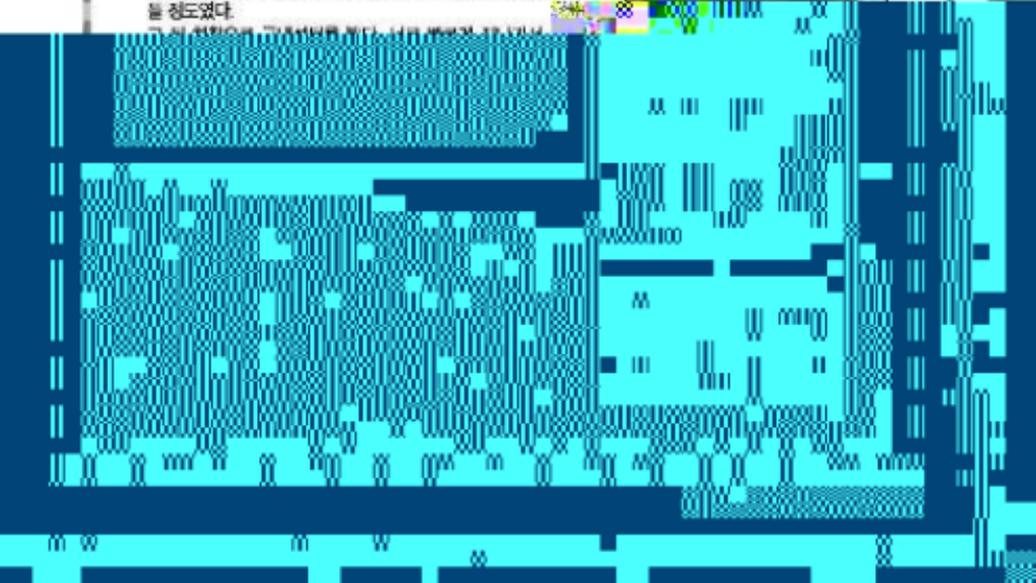
다음으로 도착한 동양의 피라미드 불리는 장군봉은 오랜 시간
 만들어 졌다는 것이 첫 눈에 보였다. 장군봉 뒤쪽으로 가면 무너
 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돌을 하나 해서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돌 하나를 빼낸 충격이 그렇게 크
 다는 것은 그만큼 돌 하나하나 균형을 정확히 맞춘다는 소리로 들
 려서 더 대단하게 느껴졌다. 오른쪽에 있는 사천만 적석봉은 장수
 왕의 협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고인돌이라고 보기에 구조
 도 다르고, 사신을 모시는 곳도 따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
 였다. 그 시대에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
 신기한 따름이었다.

이제 막숙해진 중국식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 있는 암록강을
 갔다. 예전에는 담백자들이 암록강을 타고 많이 건너왔다고 한다.
 저러리 강 사이가 평었다면, 제금을 댔을텐데, 이렇게 가까운데..
 어느 누가 건너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고지를
 눈앞에 두고도, 복숭을 걸고 나오야하니.. 얼마나 답답한까 싶었
 다. 이제는 더 강비가 심어져서 암록강으로는 못나온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나가 저한 이 풍경에 감사하며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시대의 문화, 고대문명을 본다. 신라, 백제, 고구려



고구려의 고대문명, 고구려의 문화, 고구려의 문명



성의 3시간 동반은 포기하고 들은 오녀산성 박물관은, 정말 보훈이 잘 되어있었다. 근대 이전 보훈이 있으면 좋지만 한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중국이 하에 자기네 나라 역시도 만들어서 어떻게 잘 해놓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다. 박물관은 한국박물관 못지않게 잘 되어 있었는데, 시대 까지 못하게 해서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 오녀산성은 주봉이 수도로 삼아 유리왕 22년까지 40여 년을 해왔던 곳이라고 한다. 사진으로만 볼지만 사방이 철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만큼 보호 받기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을 들린 곳은 하고성사박물관이다. 땀이 있는 이 해고성과, 오녀산성 모두 온강의 오른쪽에 자리 잡고 두 성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서로 바라보고 누웠으며, 또 출토된 유물이 비슷해 축성 시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즉 풍상시에는 이 트성에서 살고, 전쟁이 일어나면 오녀산성에 들어가 성을 지켰 는 것이다. 이런 성을... 정말 누가 이곳을 성이라 하였는가. 기차역이 들어섰고, 주변은 이미 발전된 (것저것을 짓고 있는 상태였다. 이게 곧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진을 가까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찍어도 달아지는 것이라고는 생각한 일 없이 새가 경부라니... 정말 마 지 않았다.

은 속소에 들어가 있어지고 있는 우리건축의 유물들을 보고 들어온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늦게 되었던 것 같다.

8월 10일: 삼양-인현

월고 아쉬웠던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들어오는 날 후회를 가져오고 싶진 않았는데, 후회는 없지만 모든 길 눈에 담지 못한 아쉬움과, 찢은되어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억압함이 발을 매지 못하게 했던 것 같다. 들 른 좋은 가이드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 우리 팀원들 덕분에 참담이 아닌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서,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 함은 있지만, 처음 가졌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다. 그래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역사와 선조 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써 4박 5일 동안 너무나부 좋았고, 다음 이 또 기회가 온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할 거지라도 더 마음에 담아오고 싶다 는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현충사

충우공미술신기념관



충청남도 초청

서북미충청향우회 청소년 고국방문

주최: 서북미충청향우회

2013. 7. 8일 ~ 10일

Chapter 04

서북미충청향우회 청소년 고국방문

방문지역 : 충청남도 / 천안, 부여, 공주, 논산 등

방문기간 : 2013. 7. 8.(월) ~ 7. 10일(수), 2박3일

1 사업목적

- 우호협력 단체인 서북미충청행우회 청소년 교류에 상호 이해 증진
- 우리 교 역사·문화·신입 소개 및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운영을 통해 충남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

2 추진경과

- 사업명 : 서북미충청행우회 청소년 교류방문
- 방문기간 : 2013년 7월 8일(월) ~ 10일(수), 2박 3일
- 방문지역 : 충청남도
- 활동내용 : 충청남도 문화탐방, 육군훈련소 체험, 충청남도청 견학 등
- 주요일정

일자	시각		시간	세부일정
	부터	까지		
	07:30	08:30	60'	이동(충남→청주)
	08:30	09:00	30'	권계자 미팅
	09:00	10:00	60'	인계 및 이동
	10:00	12:00	120'	현충사 견학(충남지사).....
	12:00	13:00	60'	
1일차 7. 8 (목)	13:00	15:00	120'	차량이동(이산→논산)
	15:00	17:00	120'	육군훈련소 견학
	17:00	18:00	60'	이동(논산→공주)
	18:00	20:00	120'	숙식 및 휴식
	20:00	21:30	90'	산지공예 치병활동
	21:30	-	-	리셉
2일차 7. 9 (금)	07:30	08:30	60'	가침 및 중식
	08:30	09:30	60'	이동(공주→서해)
	09:30	12:00	150'	부채공예관람 견학
	12:00	13:00	60'	중식
	13:00	15:00	120'	이동(부여→산안)
	15:00	17:30	150'	육항기병단 견학
	17:30	18:00	30'	다짐
	18:00	19:30	90'	서식
	19:30	20:30	60'	이동(서안→공주)
	20:30	-	-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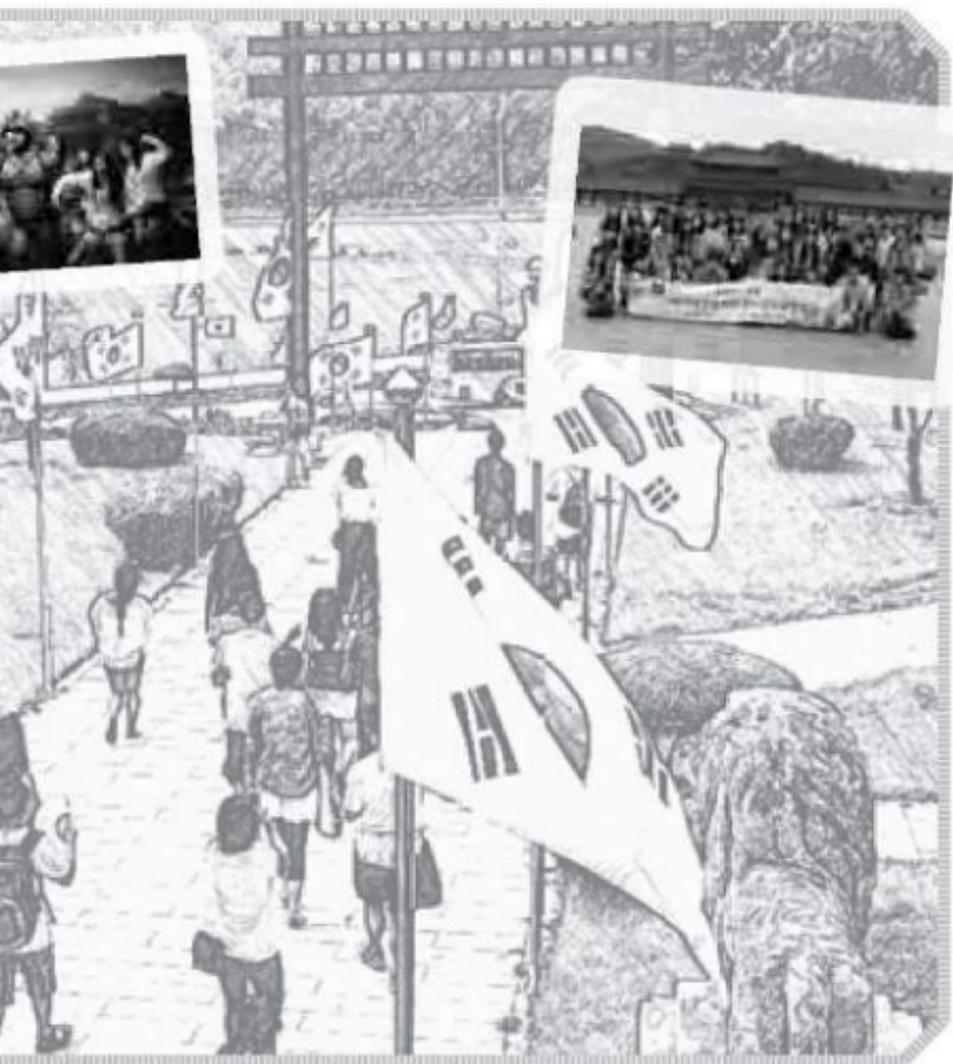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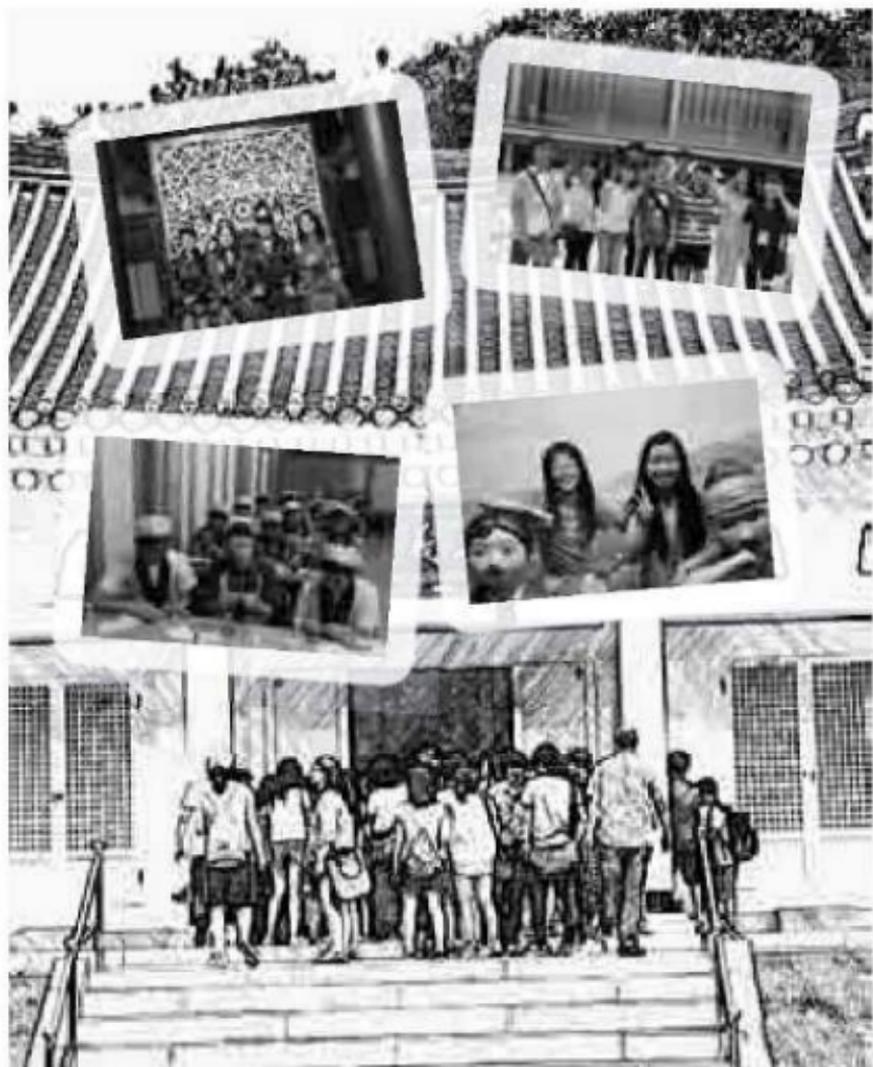
3일자 7. 10 (수)	07:30	08:30	60'	기상 및 조식
	08:30	09:30	60'	이동(숙소 → 총회사)
	09:30	10:30	60'	총회사 견학
	10:30	11:00	30'	이동(총회사 → 총남도청)
	11:00	12:00	60'	총남도청 견학
	12:00	13:30	90'	중식
	13:30	16:00	150'	이동(총남도청 → 인천공항)
	16:00	18:30	150'	출국수속
	18:30	-	-	준곡

• 참여인원

방문인원	간행인원	기타	합계
정호진 3명, 유승자 7명	권다스권 5명, 나희영 8명	이소기 2명	60명









Chapter 05

국제자원봉사활동 이것만은 알고가자

국제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준비

안전관리 대책 및 질병 유의사항

국제자원봉사활동 이것만은 알고가자!

‘국제자원봉사활동(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이란 자원봉사활동의 여러 형태 중에서 국제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활동장소기 국내일 경우에도 해당 되는데, 가령 국내에서 국제적 문제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국제자원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외국,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거주하여 지역사회 개발, 교육, 의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에는 국내에서의 활동에도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난민이나 기아자를 돕기 위한 모금이나 물건 모으기에 연령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활동, 지구촌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특히 아주 노동자,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여러 자원단체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국제자원봉사 활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준비

이것은 국제자원봉사활동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부자나라 미국에서 가난한 나라 인도로 자원봉사활동을 간다면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가르치러간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자원봉사활동은 배움(learning)의 과정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지역적 가치, 전통, 문화, 삶 등을 배우게 된다.

+ 어느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인도 네루 수상에게 물었다. “미국 평화봉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루 수상이 답하기를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인도의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네요.”

✓ 다음에 대한 이해

국제자원봉사활동을 익혀서는 우선적으로 편견을 없애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difference)’을 이해하는 것이다. 국제자원봉사활동은 다른 것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다른 것을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 속의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보편성을 확인

국제 교류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면 같은 것보다는 나와 다른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다른 것이 주로 보이지만 차츰 시간이 지남수록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경험은 일반 국제교류보다 국제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함께 생활하고 일하기 때문이다.

✓ 국제적 시각을 위한 교육

타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사회 및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심적으로 국제적, 세계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 지역사람들에게 배워라

한 지역시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의 총량은 어마어마하다. 외부시각의 시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혹은 경험이 발전된 나라에서 온 사람의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엇이든 지역주민들로부터 물어보고 배우는 자세만이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 지역의 요구에 응답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자의 시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역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지역의 요구를 들은 것이 좋다.

✓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사실 자원봉사활동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주민들과 수평적인 만남을 만들고,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라

언제나 활동을 끝내고 떠났을 때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없어도 충분히 지역주민들끼리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 신념이 더디고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친한히 기다려가며 함께 일을 해야만 지역의 역할이 강화된다.

안전관리 대책 및 질병 유의사항

✓ 활동지에서의 안전

- 활동지에서의 비상연락망 확보, 응급의료상자 등은 가까운 곳에 비치
-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처리하려 하지 말 것
- 건강관련 안전지침 : 스트레스 관리

✓ 대단한 성과나 업적을 거두겠다는 욕심을 버릴 것

- 동료 단원들과의 협력을 잘 다질 것
- 다른 동료와 자신의 수행을 비교하지 말 것
- 혼자만 친구와 가족을 만들고, 친화 노력은 거부할 것
- 주인들과 기관 측의 요구 :
 - 현지생활에 최대한 몰입되어 생활하는 자세를 가질 것
 - 기관 마음과 진지한 자세,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도록 늘 노력할 것

✓ 건강한 여행을 위해 지겨워 할 일만사항

- 배움을 이용하여 자주 손을 씻는다.
- 양분적인 밥이다 없으면 물 또는 건과자 양과 물만 있는 형태로 만든다.
- 외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 과일이나 자신의 직접 재료를 넣어서 꼭두루 만든다.
- 근육으로부터 물이 나오도록 주의한다.

✓ 여행지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 지겨워 할 음식

- 노동장에서 구할 수 없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 향미가 들어있는 음식 및 염분과 지방은 유채류만 먹지 않는다.
- 꽃간장이나 케찹도 등 중이런 향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 특히 향미, 개나 고양이 등을 만지지 않는다.

✓ 여행지에서의 여행시 준비해 볼 물품들

- 열라리아, 경기관, 사상염증, 근육마비등 등 곤충에 의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다면 야외에서 일을 할수록 모과 긴바지를 준비한다.
- 거주지가 공기정화기 인덕터가 방충사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피제(permethrin)가 처리된 모기장을 준비한다.
- 배낭을 필수품을 준비한다.
- 경수인 물을 먹거나 물을 끓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경수를 하기 위한 요오드 정제나 경수필터를 준비한다.
- 자외선차단제, 선글라스, 모자 등을 준비한다.
- 장기간 일을 복용하는 사람이거나 여행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의과 복수면 재방전을 준비한다.

*여행행정은 자원행사가 아니다, 내용 보충 / 재가이드의

2014 충청남도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참가자 모집 안내

1 충청남도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



- 사 업 명 : 충청남도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
- 모집기간 : 2014. 3 - 4월
- 모집인원 : 청소년 12명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후 선발
- 파견지역 : 베트남 등안성
- 파견기간 : 2014. 7월 - 8월 / 7박 8일
- 활동내용 : 학교환경개선활동, 방과후교실, 문화교류, 문화담당활동 등

2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 사 업 명 :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
- 모집기간 : 2014. 5월
- 모집인원 : 청소년 15명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후 선발
- 파견지역 :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 1개 국가
- 파견기간 : 2014. 8월 / 9박 10일
- 활동내용 : 지역사회시설 보수활동, 지역사회 캠페인, 문화교류활동, 문화담당, 봉사지원 등

※ 상기내용들은 여정인으로서 일정 및 파견국가, 모집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4년 홈페이지(www.bongsai.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종합연

충청남도청소년진흥회, 사회적응능력향상 청소년 캠프 실시

충청남도청소년진흥회(회장 김기호)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청소년진흥회 대회의실에서 '2014년 청소년 사회적응능력향상 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캠프는 ▲자기소개,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서 발표, ▲자기소개서 피드백, ▲자기소개서 수정, ▲자기소개서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정일보

충남청소년진흥회 지원사업인 '백미문화기획교육 발표회'가 10월 24일(토) 오후 2시에 충남청소년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청남도, 서북아동복지재단 '청소년 21세기를 위한'...

충청남도, 서북아동복지재단 '청소년 21세기를 위한'... (Text partially obscured)

충청남도청소년진흥회(회장 김기호)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청소년진흥회 대회의실에서 '2014년 청소년 사회적응능력향상 캠프'를 실시했다.

진안일보

충남청소년진흥회 청소년봉사단 경호스터서 봉사활동 등... (Text partially obscured)

충남청소년진흥회(회장 김기호)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청소년진흥회 대회의실에서 '2014년 청소년 사회적응능력향상 캠프'를 실시했다.



3. 평안일보 뉴스

봉사자 및회 교육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 알리고 참여... (Text partially obscured)



충남청소년진흥회(회장 김기호)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청소년진흥회 대회의실에서 '2014년 청소년 사회적응능력향상 캠프'를 실시했다.



2013
충청남도청소년
국제교류활동보고서



연 회 2013년 11월
일 월 2013년 11월
제 지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발 행 임 이성진
발 행 처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031-9601-96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766, 4층
Tel. 041-562-9003 / Fax. 041-362-1964
Homepage: <http://cnyouth.or.kr>
연 세 처 나사한 *중

발간권세번호 : CYM-Art-2013-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식 SNS

트위터 <http://www.com/@onbongsa>

페이스북 www.facebook.com/onbongsa

[지해]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